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어...



더글러스 에이치 스미스 장로
아시아 지역 회장

어느 젊은이가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친구들과 가족의 축하를 받으며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여러 가지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선교사 훈련원에서 필요한 적응을 하며 거기서 주어지는 지시 사항을 완수하겠다고 결심하기 전에 고향의 가족으로부터 몇 차례 전화 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는 훈련 프로그램을 겨우 마치고 선교 지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선교부장의 따스한 영접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선임 동반자는 크게 성공을 했음을 곧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새로운데 그것도 그에게는 건지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업 그 자체가 그에게 낯설고 어색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도 못되어 그는 선교사의 부름을 받아들인 것을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 선교부장과 면담 약속을 요청했으며, 선교부장은 그에게 생활의 많은 변화로 자신의 능력조차

의심하게 된 것임을 이해시켜 주려고 갖은 애를 다 썼습니다. 선교부장은 그에게 선교 사업일에 적응을 하고 주님의 전도 계획에 따르며 순종하기 위해 조금만 더 시간을 가져 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몇 번이고 새로 부임한 장로는 “나는 집에 가고 싶습니다.”하고 되뇌일 뿐이었습니다.

한 가지 아주 흥미있는 사실은 선교부장과 면담을 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그 선교사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후 그 장로를 위한 약속 시간이 다시 정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총관리 역원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젊은이를 위한 기도는 여전히 계속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새로 부름받은 장로가 옳은 일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계속 드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는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하는 말만 계속했습니다.

지역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선교사는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그만이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는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장로들과 자매 선교사들이 자기들을 선교 사업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능력에 대하여 간단히 간증한 것은 이상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낀다는 것이 그들의 메시지와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에서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몇몇 선교사들은 외국어를 말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는 데 여러 날이 걸렸으나 주님의 도움으로 배우는 각 단계마다 그들은 강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주님이 직접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주어진 주요 말씀은 특히 그를 위한 것으로 보였으나,

그는 여전히 “나는 집에 가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의 감독과 집에 전화를 해본 결과 그에게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가 그대로 선교 지역에서 선교 사업을 영예롭게 마치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다 주님에게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그의 결심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그에게 이해시키려 노력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새로운 선교사와 가까운 사람들은 그에게 통찰력과 힘을 주고자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그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회원 선교 사업은 대부분의 우리들에게 있어 새롭고도 색다른 경험이므로, 우리 역시 두려워하고 “집에 가고 싶어하며” 아시아 전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중요한 사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몇 번이고 주님은 예언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설득하시고 빠르게 인도하시고자 합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 지혜와 진리와 빛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무한히 선하시며 친절하시나 결코 우리를 강압하지 않습니다.

1988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서 주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확신시켜 주는 말씀을 했습니다. “기운을 내라.”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임이니,”(교성 78:18) “내가 나의 영을 네게 나누어 주려니와 저는 네 마음을 밝혀 주며 네 영육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리라.”(교성 11 : 13)

회원 선교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 각자는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조화를 이루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선교사도 실패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에게 봉사함으로써 그분을 알게 될 때, 주님의 영을 보내 주시고,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순종이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자유의지에 따라 순종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따르는 것도 아니고 무지한 상태로 추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식’(베드로전서 1 : 14)과 같이, 우리는 좀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은 생에 대한 열기도 아니고 숙명론적인 포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주님의 제자로서 적극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생의 생활 과정에서 모든 인간은 큰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모든 개개인이 똑같이 귀중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선택의 결과를 마음대로 변경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닐 에이 맥스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2, 6페이지, 북크래프트사 : 유타, 솔트레이크시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주님의 거룩한 사명,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한 복음의 회복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인 간증과 증거 및 그것이 모두 참된 것이라는 우리의 지식은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풍요로운 축복이 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생활에 축복을 가져다 주는 진리를 추구하는 데서 기쁨을 얻게 되도록 우리가 생활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전세계의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러한 영원한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힘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 북 스테이크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

서울 북 스테이크는 지난 3월 4, 5일 양일간에 걸쳐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를 열었다. 감리자는 아시아 지역 회장인 더글러스 에이치 스미스 장로였다.

이번 스테이크 대회에서는 요한복음 21장 17절의 “세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를 주제로 스테이크내의 비활동 회원의 활동화에 많은 관심을

가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다.

복음 선교사에게 회원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도움 방법 그리고 회원, 선교사, 구도자를 연결하는 선교원리를 통하여 비활동 회원의 활동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동안 스테이크를 위해 봉사해 오던 송평중 스테이크장이 해임되고 새로운 스테이크장단이 조직되었다. 새로운 스테이크장에 서원 형제, 1보좌에 손병호 형제, 2보좌에 김영근 형제가 각각 부름 받았다.

좌로부터 1보좌 손병호 형제, 서원 스테이크장, 2보좌 김영근 형제



1989년도 서울 동 신학연구원 졸업식 및 1학기 입학식

1989년 3월 4일(토)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 동 신학연구원 졸업식 및 입학식이 있었다. 졸업자와 입학자를 축하하기 위해 동 신학연구원 소속 스테이크장과 감독, 지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테이크장들의 축하말씀과 동 신학연구원장인 서 희철 형제의 환영말씀으로 진행되었으며, 폐회 후에는 신학연구원의 전통인 떡파티가 있었다.

서 희철 형제는 환영사에서 예언자의 학교로 불리던 신학연구원과 종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졸업생들에게는 축하와 그동안의 수고와 성실에 경의를,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에게는 지속적인 노력과 우정을 부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8년만에 졸업하게 된 성남 와드의 이 호상 형제가 교육기부 대표상을 수상했으며, 그동안 동 신학연구원 학생회 회장과 부회장으로 수고했던 고 효선 형제, 김 미정 자매가 동 신학연구원장상과 동창회장상을 수상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며 젊은이들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이기도 한 삼청 와드의 서 영숙 자매가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 스테이크의 중앙 농아 지부에 속한 형제 3명이 졸업을 함께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졸업자 명단(무순)
이 호상 형제(성남 와드)
김 미정 자매(미아 와드)
고 효선 형제(신당 와드)
서 영숙 자매(삼청 와드)
백 명숙 자매(도봉 와드)
남 수진 자매(이문 지부)
서 석우 형제(반포 지부)
남 미영 자매(화양 와드)

최 영원 자매(화양 와드)
조 기준 형제(화양 와드)
한 미순 자매(금호 지부)
이 흥영 형제(금호 지부)
이 미옥 자매(태능 와드)
조 주연 형제(복대 와드)
조 일 형제(농아 지부)
이 길용 형제(농아 지부)
김 병수 형제(농아 지부)

졸업생과 신권 역원들



순천 지부 건물 헌납식

광주 스테이크 순천 지부에서는 3월 11일(토) 오후 4시에 신축 건물 헌납식을 가졌다. 10여명의 신권 지도자가 테이프를 끊는 것으로 시작한 이 헌납식에서 서 일영 지부장의 약사 보고를 듣고 말씀순서에 들어갔다.

관리본부의 서 원 형제는 예배당을 회원 모두가 깨끗하게 관리하고 유지하기를 당부하였고 김 제안 스테이크장은 교리와 성약 88편 119절을 인용하면서 예배당이 신권의

권능에 의한 질서의 집이 되고 주님의 영이 거하는 곳, 신앙의 집, 기도, 찬송의 집, 금식의 집, 우정, 기쁨, 화평의 집이 되도록 건물을 지키고 사랑할 것을 권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범태 축복사의 영감어린 헌납 기도로 모임을 마쳤다. 헌납식이 끝난 후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정성들여 준비한 다과를 들면서 담소를 나누었다.

테이프를 끊는 신권 지도자들



선교사 훈련원 제100기 수료 (1989. 2. 13~24)

서울 선교부

권 익렬 장로(수성 와드)
안 정선 자매(상당 와드)
조 인순 자매(노송 와드)
정 병렬 장로(경주 지부)
김 주현 장로(농성 와드)
남 선택 장로(울산 지부)
서울 서 선교부
박 현용 장로(경주 지부)

권 문중 장로(진주 와드)
손 영훈 장로(화양 와드)
부산 선교부
김 수경 자매(미아 와드)
임 승희 자매(과천 지부)
김 혜정 자매(상당 와드)
대전 선교부
이 흥영 장로(금호 지부)

손 종관 장로(미아 와드)
김 승엽 장로(중앙 와드)
김 옥남 자매(은천 와드)
박 선희 자매(노량진 와드)
조 상희 자매(복대 와드)
남 효덕 자매(영등포 지부)
정 문숙 자매(울산 지부)
한 상미 자매(번동 와드)

훈련을 마친 선교사들



선교사 훈련원 제101기 수료

(1989. 3. 13~24)

부산 선교부

박 노민 장로(복대 와드)
김 성훈 장로(노량진 와드)
강 숙희 자매(목포 와드)
정 혜련 자매(충장 와드)

대전 선교부

정 상우 장로(공항 지부)
이 춘길 장로(독산 지부)
임 태규 장로(상당 와드)
정 민기 장로(송림 와드)
박 영석 장로(봉천 와드)
유 장철 장로(잠실 와드)
안 정란 자매(상당 와드)
강 선희 자매(신정 와드)
이 순자 자매(진주 와드)

서울 서 선교부

오 광철 장로(서귀포 지부)
서 민수 장로(창원 지부)
이 신숙 자매(목포 와드)
임 미숙 자매(복대 와드)
기 경숙 자매(정주 지부)
김 순희 자매(충장 와드)
김 옥란 자매(충장 와드)

한국 선교사 훈련원 이전

그동안 서울 성전 구내에 있던 한국 선교사 훈련원이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500-18호로 이전하였다.

이곳은 서울 성전과 담 하나를 경계로 하고 있으며 신촌 와드, 모래내 지부 및 서울 서 신학연구원이 사용하게 되었다.

그동안 서울 서 신학연구원과 함께 사용하던 전화번호에서 336-5373번으로 새로이 전용 전화가 개설되었다.

선교 사업을 출발하는 형제, 자매들의 참고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을 마친 선교사들